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10.4.(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DMZ정책과 (DMZ정책팀)	과 장	설종진 (031-8030-2650)					
		팀 장	강승엽 (031-8030-2651)					
		담당자	이범구 (031-8030-2654)					

‘더 큰 평화 위한 힘찬 출발 2022 ‘DMZ 평화 마라톤 대회’ 성황리 개최

- 2022 DMZ 평화 마라톤 대회, 2일 파주 DMZ 일원서 성황리 개최
 - 마라톤 동호인, 미군 및 국군 장병 등 1,000여 명 참가
 - 하프/10km 2개 코스로 나눠 진행..포토타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
- 2022 디엠지 런 - 15일 평화 자전거, 29일 평화 걷기 개최 예정

경기도는 접경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험해보는 ‘2022 DMZ 평화 마라톤 대회’가 지난 2일 파주 DMZ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개최해온 ‘DMZ 평화 마라톤 대회’는 경기도의 대표 평화 스포츠 체험행사인 ‘디엠지 런(DMZ RUN)’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역사와 생명이 숨 쉬는 DMZ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를 기원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부터 대회를 잠시 중단해야 했으나, 올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대회를 전면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회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마라톤 동호인, 주한미군, 국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하프(약 21km), 10km 2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금단의 땅인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을 지나 남북출입사무소(CIQ)까지 달려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가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하프 코스 참가자들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다시 출발점으로 오는 코스를, 10km 참가자들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통일대교를 건너 군내삼거리에서 반환점을 찍고 오는 코스를 달렸다.

대회 결과 하프 코스 남자 부문은 강두희씨, 여자는 최수연씨가 우승을, 10km 코스 남자는 박재영씨, 여자는 최인옥씨가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코스별 입상자에게는 트로피를 수여하고,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완주 메달과 기념 티셔츠 등을 제공했다.

이번 대회에는 포토타임, 특산물 판매 부스,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대회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비대면(언택트) 레이스 행사’도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영조 선수, 윤후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서진하 육군제1보병사단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빛냈다.

황영조 선수는 “오늘은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리지만 여기 모인 모두의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곧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개성공단까지 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되며, 그날까지 DMZ RUN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한규 부지사는 “DMZ는 평화의 상징인 동시에 생태의 보고”라며 “이번 대회가 ‘더 큰 평화의 시대’를 향한 경기도의 발걸음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한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디엠지 런은 이번 평화 마라톤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평화 자전거, 29일 평화 걷기를 개최하며 평화 걷기는 1,000명 참가자 접수가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참가자들에게 각종 멸종위기종이 살아 숨 쉬는 DMZ 생태탐방로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디엠지 런 공식 홈페이지(www.dmzrun.or.kr)를 참고하면 된다.